

## 울리히 벡 교수 초청 시민사회와의 대화

글·**김 신** skim1971@gmail.com 사진·**황석선** stonesok@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달 4일(금) 오후 4시 서울 중구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세계적인 석학 울리히 벡(Ulrich Beck) 독일 뮌헨대사회학연구소장과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초대하여 '한국의 시민사회와 성찰적 근대화'에 대한 대회의 모임을 마련하였다. 1986년 '위험사회론'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벡 교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 대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가적 연대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재창조할 것을 주장해 왔다.

성찰적 근대화라는 화두로 만난 한국의 시민사회와 벡 교수는 시장과 민주주의, 인간안보, 환경, 젠더, 다문화 등 한국의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기 파괴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이상으로 초국가적 차원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연대가 중요하며 연대의 주체가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세력의 정치적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 시민사회는 정치적 연출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지난 세기동안 민주주의는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면서 발전을 지속해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탄탄한 미래를 보장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민주주의 성취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위협 당하고 퇴보하는 사례를 보임으로써 국가적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과 다원성, 자유, 인권, 평화와 같은 가치를 기반으 로 성장하는 제도 이상의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비록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성공적인 민주주의 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기도 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라는 화두를 두고 심각한 우려와 고민들이 다양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겪은 만큼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공감 속에서 '성찰적 근대화'라는 화두로 만난 이 자리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벡 교수는 시장과 민주주의, 인간안보, 환경과 녹색당 운동, 여성과 일상의 민주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등 한국의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기 파괴적인여러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한다는 과제를제시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이후 이전보다더 다양하고 다원화된 운동들이 나타나고있지만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대응이 정치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근대화로 인한 위험들은 주로 시장의 확대의 결과로 공공영역의 활성화와 시장 견제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과 민주주의는 병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었다. 박 소장은 시장은 "'관리된 자유'로서 규제와 불가분한 공정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언론이 사회적 압력의 형태로 작용하여 공공성의 영역을 지켜내야 한다."고 화두를 제시하였다.

벡 교수는 "위험요소에 대해 목적성을 갖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목적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전문성 과 지식이 필요 나아가 위험에 대한 연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치적 힘은 위험에 대한 예측과 그러 한 '위험의 연출'에서 온다고 제시하면서 잠재된 위험을 과학적 이슈로 뿐만 아니라 인간생존의 문제로 연출하고 이를 위한 언론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유럽에서 의 소비자 정치화운동을 예로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심지 어 특정 부분의 산업이나 시장과의 협력으로까지도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위험을 결집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민영 협동사무처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사회 안에서 평화운동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 다고 평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서로 대립하 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은 더 악화되어 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평 화운동은 동아시아에서 국가 사이 개입보다 인간차원의 새로운 평화적 연대를 모색하고자 한다는 고민을 참가자 들과 공유하였다.

벡 교수는 유럽의 평화정착 과정이 아무도 예상 못한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관점에 서 출발해서 군사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시민 운동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단체는 전쟁이 해결 책이 아니라는 기본적 메시지로 군대 내에 그 지부를 설

**ゼルト:** ...





립함으로써 군대를 시민사회의 일부분으로 이끌어 냈다고 한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일부분이 된 군대는 실제로 군사적 개입이 발생하더라도 무력의 직접적인 사용을 최소화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시민사회의 역할

차명제 용인환경정의 대표는 한국의 압축적 경제발전과 개발주의적 접근은 광적 소비와 성장 우선주의라는 병을 한국사회에 안겨주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 이나 해결의지가 없는 정부와 시장을 비판하였다.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취약한 실정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다. 차 대표는 한국도 유럽의 1968년 이후와 유사한 사회적 진화가 있었고 시민운동이 발전했음에도 녹색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찰적 근대화가 한국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벡 교수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운동이 존재하지만 사회를 정치화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한국

사회가 성찰을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시민사회가 대중들을 흡인하지 못한 면에서 정치적 힘을 잃고 있다는 성찰과 함께 대화가 자연스럽게 여성의 문제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접근하고 있는 여성단체연합 의 박영미 대표에게 이어졌다.

그는 여성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성의 일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현실을 성찰하였다. 그 이유로 여성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확산되는 것을 스스로의 과제로 수용하지 못한 점과 보수적 언론 속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정당하게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여성이 여성운동과는 거리감을 느끼는 반면, 오히려 시장 권력자를 일상의 통솔자로 가까이느끼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현상을 지적하였다.

결국 위험이 정치화되지 않는 한국 현실의 특수성 속에 서 시민사회와 일반시민과의 적극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가 야기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나 사회기본정책이 다문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이 한국으로의 동화를 기조로 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국제연대를 통해 아시아 여성을 도구화하는 잘못된 세계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 제를 공유하였다.

벡 교수는 한 사회의 내부적 세계화(internal-glo balisation)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면서 다문화의 문제는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과 연관해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타자에대한 개방과 허용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시민권이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구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이주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사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탰다.

## 대중과의 소통 방식

마지막으로 한국사회가 대중을 어떻게 시민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승창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장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시민운동이 과거처럼 하나의 큰 조직화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있다는 면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시민 운동이 기존의 정치세력에 기대는 경향이 강했던 점도 지적하였다.

한국 시민사회가 압축적으로 성장한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위험들에 대해 인식이나 연출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는 반성이다.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는 인터넷을 비롯

해 소통방법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소통방식에 시민사회가 익숙해 질 때 시민사회의 담론과 의제가일상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풀뿌리운동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일상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의 시민운동의 전망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구갑우 북한대학원 교수는 파국론에 기반한 시민 운동을 전개할 때 신자유주의가 주류가 되고 시민사회가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구도로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파국론을 넘어선 일종의 포지티브 사회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준호 경희대 연구교수는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시장논리가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될 수 도 있지만,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백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국가차원의 정치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개념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초국가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대화의 위험을 성찰적으로 짚어가면서 초국가적 연대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근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할 하위정치 (sub-politics)라는 개념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글·김 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 전문위원

| 22 | 18 to 16 to